

漁村地域주민들의 漁業觀 認知에 관한 考察 *

李 鉉 雨**

A Study on a View of Fishing of Inhabitants in Fishing Village

Lee, Hyun Woo

목 차	
I. 序 論	III. 結果 및 解釋
1. 研究目的	1. 家族 관련 水産業 참여 態度
2. 研究內容	2.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觀
II. 研究方法	IV. 結論 및 要約

I. 序 論

1. 研究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漁村에 居住하는 住民들이 漁業 및 水産業에 관한 職業的 價値를 어떻게 判斷하고 있는가를 確實히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目的을 解決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觀點에서 그 反應을 얻고자 한다.

첫째, 漁村에 居住하는 住民들이 漁業 및 水産業 分野에 종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얻고자하는 解答은 漁村住民들의 漁業 및 水産業에 대한 選好도와 受容 態度에 있어서 肯定的인 反應과 否定的인 反應을 밝혀 各 反應에 대한 具體的인 代案을 찾고 자 하는데 있다.

둘째, 漁業이나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를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 즉 漁業이나 水産業에 대 하여 漁村住民들이 客觀的으로 認知하고 있는 態度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얻고자하는 解答은 漁業이나 水産業을 生涯의 手段으로 삼을 때 肯定的인 要素와 否 定的인 要素가 무엇인가를 규명하여 이에 대한 改善策과 補完策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目的이 達成되면 오늘날 漁村地域에서 問題視되고 있는 漁村의 婦女化, 老齡化 예 방 뿐만 아니라 漁村의 地域發展과 經濟成長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方案을 얻을 수 있을 것으

* 本 研究은 韓國水産經營學會의 研究費 지원으로 실시되었음.

** 釜山水産大學校, 水産海洋大學, 水産教育學科 副教授

로 예상한다.

특히 오늘날 産業化로 因하여 一次産業이 외면 당하고 있는 實情을 감안할때, 一次産業이 指向해야할 現代化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데 主要骨子가 있다.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研究內容을 設定한다.

2. 研究內容

(1) 水産業 및 漁業 관련 직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子女들의 意思決定에 대하여 家族員의 態度는 어떠한 것인가?

(2) 水産業 및 漁業을 生涯手段으로 삼을 때, 漁村地域 住民들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이와 같은 研究內容을 밝히기 위하여 漁村地域 住民들을 대상으로 說問調査를 實施하여 「性別」, 「年齡別」, 「學歷別」, 「經歷別」, 「地域別」로 區分하여 贊反 兩論의 反應을 얻고 그에 따라 肯定的인 要因과 否定的인 要因을 가려서 改善點과 補完點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說問製作

說問製作은 研究內容을 具體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客觀式 選多型으로 한 研究者 製作이었다.

說問方法은 指示問에 依한 各 問項의 強制 擇一 형식으로 하였다.

2. 研究對象

研究對象은 全國 水産系 高等學校가 있는 漁村地域을 中心으로 水高生, 教師, 學父母 및 漁業關聯 公務員을 對象으로 약 2,000명을 無選 標集하였다.

3. 統計處理

調査된 說問의 統計處理는 Cyber 컴퓨터로 하였으며 백분율을 환산하고 X^2 로 差의 檢定을 하였다. 差의 檢定을 한 理由는 調査過程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最小化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III. 結果 및 解釋

1. 家族 관련 水産業 참여 態度

漁村에 居住하는 漁民들의 家族員 中 한 사람이 水産業에 종사하고자 희망할 때 그 家族員들의 意思決定 態度가 어떠한지를 具體的으로 알아 보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 中 한 사람이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反應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력별」 「지역별」의 순서로 알아 보았다.

첫째, 가족관련 수산업 참여 태도에 관하여 性別로 알아 본 反應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산업 참여에 대한 가족원의 찬반태도

성 별	구 분	찬 성	반 대	총 계
남		64.9(A)	35.1	1,784
여		62.0(B)	38.0	79
%		64.8(C)	35.2	1,863

$$X^2=0.16 \quad df=1 \quad P>.5 \quad C=\frac{A+B(\text{실수})}{1863} \times 100$$

<표 1>에서와 같이 男女 총 應答者 1863명中 「가족원의 수산업 참여」에 찬성한 비율은 64.8%, 반대가 35.2%로 나타났다. 家族員의 水産業 참여에 대한 意思決定에 찬성한 應答者가 반대한 應答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男女別 찬성율을 비교해 볼 때 「男子=64.9%」, 「女子=62.0%」로 男子가 女子보다 약간 더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結果를 綜合的으로 分析해 볼 때 漁村地域 住民들의 대부분이 水産業 종사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水産業에 종사하는 것을 매우 肯定的으로 受容하고 있는 態度를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事實을 더욱 確實히 규명하기 위하여 「찬성」에 同意한 64.8%의 家族員에만 限하여 그 찬성의 理由를 알아 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수산업 참여에 대한 찬성이유

성 별	구 분	직업적 귀천이 없기 때문	수입이 많아서	발전 가능성	어촌 발전	기 타	계
남		14.8	10.6	53.6	18.8	2.2	1,159
여		12.0	8.0	58.0	18.0	4.0	50
%		14.6	10.5	53.8	18.8	2.3	1,209

$$X^2=1.38 \quad df=4 \quad P>.5$$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찬성이유 중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 때문이 53.8%, 「어촌발전을 위해서」가 18.8%,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이 14.6%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男女別로 찬성 이유를 살려 볼 때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男子(53.6%)보다 여자(58.0%)가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를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그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은 水産業의 未來發展에 높은 기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가족원 중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한 35.2%에 限하여 그 反對 理由를 밝혀 본 結果는 〈표 3〉과 같다.

〈표 3〉 수산업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

구분 성별	수익성이 적어서	과중한 노동력	발전가능성 불투명	수산업의 인식부족	어업의 천시성	출세장애	기 타	계
남	8.6	26.4	26.4	7.5	11.4	15.1	4.6	62.9
여	3.2	45.2	16.1	16.1	6.5	6.5	6.5	31
%	8.3	27.3	25.9	7.9	11.2	14.7	4.7	660

$X^2=11.22$ $df=6$ $P>.5$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반대이유 중 「과중한 육체적 노동력」 때문이 27.3%,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 25.9%, 「출세 장애」가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반대 이유를 男女別로 볼 때 「과중한 노동력」때문이라고 본 항목에 있어서는 男子(26.4%)가 女子(45.2%) 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에는 男子(26.4%)가 女子(16.1%)보다 높게 반응하였다.

위의 贊反 兩論을 全體的으로 綜合해 볼 때 「가족원의 수산업 종사」를 찬성하는 漁民들은 그 理由를 水産業의 發展可能性에 그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反面, 水産業 종사를 反對하는 漁民들의 主要 理由는 「과중한 육체적 노동력」과 「수산업 발전의 불투명성」에 그 비중을 높게 두고 있음이 밝혀 졌다.

그러나 贊反 兩論에 反應한 총 應答者의 事例數를 비교할 때 贊成者가 反對者의 倍數에 가까웠다는 事實을 고려한다면, 漁民들이 생각하는 水産業의 發展可能性은 매우 긍정적임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家族 관련 水産業 참여 태도에 관한 「연령별」 찬반 反應은 〈표 4〉와 같다.

〈표 4〉 수산업 참여에 대한 연령별 반응

연령별 구분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
찬 성	73.6	53.7	55.8	53.0	60.2	50.0	64.7
반 대	26.4	46.3	44.2	47.0	39.8	50.0	35.3
계	973	203	382	215	83	8	1,864

$X^2=72.0$ $df=5$ $P<.001$

〈표 4〉와 같이 총 응답자 1863명 중 「가족원의 수산업 참여」에 대한 「찬성」이 64.7%, 「반대」가 35.3%로 나타났다. 이러한 찬반 양론을 연령별 분포로 살펴 볼 때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9세 이하로 73.6%, 다음은 50대가 60.2%, 30대가 55.8%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事實을 더욱 確實히 밝혀보기 위하여 「찬성」에 同意한 64.7%의 人員에만 限하여 그 찬성의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 볼 때 나타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수산업 참여의 연령별 찬성 이유

구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계
직업에 귀천이 없어서		14.0	20.9	14.0	11.3	19.6	0	14.6
수입이 많아서		12.5	7.3	7.4	7.0	9.8	25.0	10.5
발전 가능성		54.0	50.0	54.0	60.0	43.1	50.0	53.7
어촌 발전		17.0	17.3	23.3	20.9	25.5	25.0	18.9
기 타		2.5	4.5	1.4	0.9	2.0	0	2.3
계		713	110	215	115	51	4	1,208

$X^2=25.2$ $df=20$ $P>.5$

〈표 5〉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찬성자 1208명중 53.7%가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가장 높은 反應을 하였으니, 다음으로 18.9%가 「어촌발전 때문」이라는 이유에 反應하였다.

이러한 두가지 理由중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령별 反應은 40대가 6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은 10대와 30대가 각각 54.0%로 나타났다. 그와 반면에 50대가 가장 낮은 반응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가족원의 수산업 참여」에 대한 찬성 이유는 연령에 관계없이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크게 비중을 두고 긍정적인 태도 반응을 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다음은 「수산업 종사」에 반대한 35.3%에 限하여 그 「반대」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 볼 때 나타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령별 수산업 반대 이유

구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계
수익성이 적어서		7.3	7.4	10.6	6.9	9.1	25.0	8.3
과중한 노동력		41.9	25.3	15.9	14.9	15.2	0	27.1
발전가능성 불투명		13.1	31.6	35.9	37.6	27.3	0	25.9
수산업의 인식부족		8.1	9.5	10.0	2.0	9.1	0	7.8
어업의 천시성		12.3	11.6	11.8	8.9	6.1	0	11.2
출세 장애		12.7	11.6	11.2	23.8	30.0	75.0	15.1
기 타		4.6	3.2	4.7	5.9	3.0	0	4.5
계		260	95	170	101	33	4	663

$X^2=103.6$ $df=30$ $P<.001$

〈표 6〉에 의하면 수산업 참여에 반대한 총 應答者 663명 중 27.1%는 「과중한 노동력」에 그 理由를 두고 있으며, 다음은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 25.9%로 높게 나타났다.

과중한 육체적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理由를 연령별로 분석해 볼 때 19세 이하가 41.9%의 反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는 그와 반면에 14.9%의 反應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타난 「반대」이유중 「수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는 40대가 37.6%로 가장 높은 反應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수산업 참여에 대한 찬반 양론의 이유 중 찬성자가 보는 水産業은 發展的인 未來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反對者의 이유는 주로 「과중한 노동력」과 「발전 可能性의 불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밝혀 졌다. 이에 대한 兩論의 發展적인 代案은 水産業의 機械化 시설이 時急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세계, 가족관련 수산업 참여 태도에 관하여 「학력별」로 찬반 양론을 알아 본 結果는 〈표 7〉과 같다.

〈표 7〉 학력별 수산업 참여 찬반 태도

구분	학력별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재	고 졸	대졸(이상)	%
찬 성		100.0	38.6	46.8	72.9	60.5	57.2	64.9
반 대		0	61.4	53.2	27.1	39.5	42.8	35.1
계		2	70	94	988	309	390	1,853

$$X^2=76.30 \quad df=5 \quad P<.001$$

〈표 7〉에 따르면 총 應答者 1853명 중 가족원의 수산업 참여를 찬성한 비율이 64.9%, 반대한 비율이 35.1%로 찬성율이 반대율 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학력별로 分析해 볼 때 「無學」이 100% 찬성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으나 事例數가 극히 적었으므로 一般化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 事例數가 많은 反應者를 中心으로 살펴 볼 때, 高校 在學生의 경우 찬성율이 7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이 高卒者로 60.5%, 大卒者가 57.2%의 順位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를 分析해 볼 때 高等學校 在學生을 中心으로 上下의 學歷에서 學歷이 높은 사람이 學歷이 낮은 사람에 비해 「수산업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內容을 더욱 具體的으로 分析해 보기 위하여 「찬성자」 64.9%의 찬성이유와 「반대자」 35.1%의 반대이유를 각각 分離해서 밝혀 본 결과 〈표 8〉 〈표 9〉와 같다.

〈표 8〉에 의하면 「학력별 수산업 참여」에 찬성하는 그 理由를 알아 본 결과 全體적으로 볼 때 총 찬성자 1205(64.9%)명 중 53.9%가 學歷에 關係없이 水産業의 發展 可能 때문이라는 理由에 가장 높은 反應을 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理由를 「어촌발전」에 두고 있었으며 18.7%, 직업적 귀천이 없기 때문이 14.7%의 순으로 들어났다.

〈표 8〉 학력별 수산업 찬성 이유

구분	학력별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재	고 졸	대졸(이상)	%
직업적 귀천이 없기 때문		50.0	22.2	8.9	14.3	12.2	17.8	14.7
수입이 많아서		0	14.8	4.4	12.4	8.0	7.1	10.5
발전가능성		50.0	40.7	42.2	54.0	49.5	60.9	53.9
어촌 발전		0	22.2	44.4	16.9	29.3	10.2	18.7
기 타		0	0	0	2.4	1.1	4.0	2.3
계		2	27	45	718	188	225	1205

$X^2=62.6$ $df=20$ $P<.001$

이를 學歷別로 分析해 볼 때 (無學除外) 學歷이 높을수록 水産業의 發展可能性에 더 높은 反應을 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反應의 비율을 나타낸 「어촌발전」을 위한 理由에 있어서는 中 卒者가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高卒이 29.3%, 국졸이 22.2%, 고재학생이 16.9%로 나타난 反面에 大卒者는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이라는 理由에 17.8%를 나타내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풀이해 볼 때 「학력별 가족관련 수산업 참여를 찬성」하는 理由에 있어서 學歷이 높을 수록 水産業의 未來發展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水産業을 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水産業 참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평가되는 태도를 추정해 볼 때 앞으로 水産業의 發展이 크게 기대되는 직업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학력별 가족 관련 수산업 참여에 반대한 <표 7> 35.1%에 한하여 그 反對한 理由를 알아 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수산업 참여 반대 이유

구분	학력별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재	고 졸	대졸(이상)	%
수익성이 적어서		0	7.0	8.0	8.5	10.7	5.9	8.7
과중한 노동력		0	25.6	12.0	40.2	23.0	14.8	27.3
발전가능성 불투명		0	32.6	32.0	13.7	36.9	35.5	26.3
수산업의 인식부족		0	0	6.0	8.9	5.7	10.7	7.9
어업의 천시성		0	7.0	20.0	12.5	12.3	6.5	11.1
출세 장애		0	25.6	20.0	12.2	9.0	18.3	14.7
기 타		0	2.3	2.0	4.1	2.5	8.3	4.6
계		0	43	50	271	122	169	655

$X^2=93.69$ $df=24$ $P<.001$

<표 9>에 따르면 「수산업 참여에 반대」한 총 應答者 655명 중 그 反對 理由를 학력에 관계 없이 大部分의 경우 「과중한 노동력=27.3%», 「발전 가능성의 불투명=26.3%」에 가장 높은 反應을 하였다. 다음의 반대 이유로 「출세장애=14.6%», 「어업의 천시 사상=11.1%」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대 이유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과중한 노동력」과 「발전가능성 불투명」을 학력별로 분석해 볼 때 국졸자(32.6%), 중졸자(32.0%), 고졸자(36.9%), 대졸자(35.5%)는 후자의 理由에 더 많은 反應을 하였고, 고등학교 재학생 만은 「과중한 노동력」에 40.2%의 가장 높은 反應을 하였다.

이와 같이 水産業 참여에 反對한 理由를 종합해 볼 때 水産業의 참여를 反對하는 否定的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과중한 육체적 노동이 요구되는 직업을 싫어하고 있는 편이며, 水産業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보는 立場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산업 참여를 찬성하는 인원에 비해서 반대하는 인원이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小數임을 감안할 때 水産業이란 매우 밝은 전망임을 추측할 수 있다.

네째로, 「가족관련 수산업 참여 태도」를 경력별로 알아 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여기서 경력별이란 어촌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수산업 관련 직종에 종사했거나 혹은 현재 관련 직종에 종사하거나, 또는 관련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그 연도를 환산하여 그 내용을 알아 본 것임을 밝혀 둔다.

<표 10> 경력별 수산업 찬반 태도

구분	경력별	5년 이하	6~15	15~25	26~35	36년 이상	%
찬	성	47.8	61.5	58.9	61.3	73.7	64.8
반	대	52.2	38.5	41.1	38.7	26.3	35.2
계		322	109	304	186	932	1,853

$$\chi^2=79.3 \quad df=4 \quad P<.001$$

<표 10>에 따르면 경력별 총 應答者 1853명 중 「수산업 참여」에 찬성한자가 64.8%, 반대자가 35.2%로 들어났다.

이와 같은 反應者를 경력별로 분석해 볼 때 36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찬성율이 73.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5년이하의 경력자가 가장 낮은 47.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력이 많은 사람이 가족원의 수산업 참여에 찬성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와 반면에 반대자는 총 應答자의 35.2%에 불과 했으며, 경력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5년이하가 52.2%, 16~25년 사이가 41.1%의 순위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나타난 찬성자 64.8%에 한하면 그 찬성의 이유를 경력별로 알아 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경력별 총 찬성자 1204명 중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차지한 理由는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53.7%를 차지했다. 다음이 「어촌발전을 위해서가」가 18.7%, 「직업적 귀천이 없기 때문」이 14.7%등의 순위였다.

이를 경력별로 볼 때 水産業의 發展可能性 때문에 水産業 참여를 찬성한다는 理由가 共通的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찬성율이 가장 높은 集團은 6~25년

〈표 11〉 경력별 수산업 참여 찬성 이유

구분	경력별	5년 이하	6~15	16~25	26~35	36년 이상	%
직업적 귀천이 없음		13.5	13.4	18.8	11.3	14.6	14.7
수입이 많아서		11.5	7.5	7.7	4.3	12.4	10.5
발전 가능성		45.5	61.2	61.9	49.6	53.4	53.7
어촌 발전		29.5	16.4	8.3	33.0	16.8	18.7
기 타		0	1.5	3.3	1.7	2.8	2.3
계		156	67	181	115	685	1,204

$X^2=56.7$ $df=16$ $P<.001$

사이의 반응자가 (61.2%, 61.9%) 가장 높은 찬성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찬성율이 높았던 要因은 「어촌발전」을 위해서가 높은 반응을 하였으나, 그 중에도 16~2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集團은 「직업적 귀천이 없기」 때문이 18.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漁村住民들은 水産業의 未來發展에 기대를 걸고 水産業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들어 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산업 참여」를 반대한 理由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경력별 수산업 참여 반대 이유

구분	경력별	5년 이하	6~15	16~25	26~35	36년 이상	%
수익성이 적어서		9.0	9.5	7.1	12.5	7.3	8.4
과중한 노동력		21.0	9.5	17.3	19.4	41.5	27.1
발전가능성 불투명		29.9	42.9	28.3	45.8	12.5	25.6
수산업의 인식부족		3.6	2.4	13.4	6.9	9.3	7.9
어업의 천시성		16.2	9.5	4.7	5.6	12.9	11.1
출세 장애		18.6	14.3	22.8	5.6	11.7	15.1
기 타		1.8	11.9	6.3	4.2	4.8	4.7
계		167	42	127	72	248	656

$X^2=112.2$ $df=24$ $P<.001$

〈표 26〉에 따르면 「경력별 수산업 참여를 반대」한 총 應答者 656명 중 27.1%가 「과중한 노동력」때문이라는 理由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으며, 다음으로 높은 理由는 「발전가능성의 불투명성」때문인가 25.6%를 차지했다.

이를 경력별로 볼 때 大部分의 集團이 「수산업의 발전가능성 불투명」에 가장 높은 반대 이유를 들고 있었다. 6~15년의 경력자와 16~25년 경력자는 「출세 장애」때문에 수산업 참여를 반대한다는 理由가 각각 14.3%, 22.8%로 次順位の 비율을 차지 했다.

水産業 참여를 반대하는 應答者의 大部分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理由는 水産業의 發展可能性을 매우 희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水産業에 대한 참여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漁民들이 절대 다수라고 볼 때 「반대」의견을 가진 漁民들은 환경이 改善되면 水産業에 대한 態度가 변화되리라 본다.

다섯째, 가족관련 수산업 참여에 대한 태도를 지역별로 알아 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지역별 수산업 참여에 대한 반응

지역별 구분	인천	포항	남해	거제	주문진	완도	진도	제주	대천	울릉도	기타	%
찬 성	50.5	63.7	72.3	82.9	60.8	68.3	69.8	71.7	65.2	38.3	69.2	64.8
반 대	49.5	36.3	27.7	17.1	39.2	31.7	30.2	28.3	34.8	61.7	30.8	35.2
계	190	193	148	117	222	180	162	191	187	115	156	1,861

$$X^2=82.63 \quad df=10 \quad P<.001$$

<표 13>에 따르면 지역별 총 應答者 1861명 중 「찬성」 64.8%, 「반대」 35.2%로 찬성자가 반대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반응을 하였다.

지역별로 살펴 볼 때 찬성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거제=82.9%」이며 다음으로 높았던 지역은 「남해=72.3%」, 「제주=71.7%」였으며, 그 밖의 지역은 63~69% 사이였다. 가장 찬성율이 낮았던 지역은 「울릉도=38.3%」, 「인천=50.5%」지역 등이었다.

이러한 全體的인 反應을 통해 나타난 찬성자 64.8%에 대하여 그 「찬성」의 이유를 지역별로 알아 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지역별 수산업 참여 찬성 이유

구분	지역별	인천	포항	남해	거제	주문진	완도	진도	제주	대천	울릉도	기타	%
직업적 귀천이 없기 때문		10.2	25.6	4.7	5.2	25.4	14.6	6.3	17.6	18.0	22.7	10.1	14.7
수입이 많아서		17.3	8.0	19.6	15.5	6.0	7.3	1.8	10.3	8.2	9.1	15.6	10.5
발전 가능성		62.2	56.0	55.1	55.7	41.8	58.5	57.1	54.4	59.0	40.9	44.0	53.7
어촌 발전		9.2	8.0	17.8	23.7	22.4	17.1	32.1	16.2	12.3	20.5	29.4	18.7
기 타		1.0	2.4	2.8	0	4.5	2.4	2.7	1.5	2.5	6.8	9	2.3
계		98	125	107	97	134	123	112	136	122	44	109	1,207

$$X^2=133.13 \quad df=40 \quad P<.001$$

<표 14>에 따르면 총 反應者 1207명 중 53.7%가 「찬성」의 理由를 水産業의 發展 可能性에 두고 있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높은 반응은 「어촌 발전」을 위해서가 18.7%, 「직업적 귀천이 없기 때문」이 14.7%, 「수입이 많아서」가 10.5%, 기타가 2.3%의 순위로 나타났다.

수산업 발전 가능성 때문에 찬성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62.2%, 다음은 대천 59.0%, 완도 58.5% 등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면에 가장 낮은 찬성율을 나타낸 지역은 울릉도 40.9%, 주문진 41.8% 등이었다. 그밖에 포항지역은 「직업적 귀천이 없기 때문」에 찬성한 비율이 25.6%, 주문진 25.4%, 울릉도 22.7%로 나타났다. 그 밖의 大部分의

지역은 찬성 이유를 「어촌발전」에 두고 있었다.

全體的으로 그 찬성 이유를 분석해 볼 때 地域別 意見의 差異가 多少 있기는 하였으나 大體로 共通된 찬성 이유를 水産業의 發展可能性과 漁村發展을 위해서 찬성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이와 反對로 水産業 참여를 반대한 內容을 原因別로 살펴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지역별 수산업 참여 반대 이유

구분	지역별	인천	포항	남해	거제	주문진	완도	진도	제주	대천	울릉도	기타	%
수익성이 적어서		6.4	15.3	2.4	0	13.8	10.5	14.3	3.6	4.5	4.3	6.1	8.2
과중한 노동력		25.5	26.4	34.1	30.0	20.7	29.8	28.6	43.6	37.9	12.9	20.4	27.3
발전가능성 불투명		31.9	16.7	17.1	15.0	25.3	35.1	18.4	16.4	33.3	32.9	28.6	25.9
수산업의 인식부족		8.5	6.9	7.3	20.0	6.9	3.5	18.4	3.6	4.5	7.1	8.2	7.7
어업의 천시성		16.0	9.7	17.1	15.0	6.9	8.8	3.0	5.5	1.5	22.9	20.4	11.2
출세 장애		8.5	18.1	22.0	15.0	23.0	10.5	14.3	16.4	15.2	14.3	10.2	15.2
기 타		3.2	6.9	0	5.0	3.4	1.8	4.1	10.9	3.0	5.7	6.1	4.5
계		94	72	41	20	87	57	49	55	66	70	49	660

$X^2=111.08$ $df=60$ $P<.001$

<표 15>에 따르면 「수산업 참여를 반대」한 총 應答者 660명 중 「반대 이유」의 가장 높은 요인은 「과중한 노동력」이었으며, 전체 應答者의 27.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原因은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 불투명」에 25.9%를 나타내었다.

이를 지역별 「반대」 原因을 높은 反應 順位로 살펴보면 大部分의 地域이 「반대」 原因을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의 불투명과 「과중한 노동력」 때문으로 반응하였다. 「포항=18.1%», 「남해=22.0%», 「주문진=23.0%», 「울릉도=14.3%」 등은 「출세 장애」에 次順位の 「반대」이유를, 「거제=20.0%」는 수산업의 인식 부족에 次順位の 理由를 두었다.

全體的으로 意見分析을 해 볼때 水産業의 참여를 反對한 사람들의 主要 原因이 과중한 노동력과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 불투명, 출세 장애, 수익성이 적어서, 수산업의 인식 부족 등의 順位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산업 참여에 反對 意見을 제시한 漁民들의 否定的인 態度를 過小 評價할 것이 아니라 이들 原因에 대한 對策樹立과 補完 조치가 政策的인 次元에서 하루 빨리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結果에 나타난 內容을 綜合的으로 調査한 過程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력별 및 지역별」로 나누어 가족 관련 수산업 참여 태도를 찬반 양론으로 질문하고 그에 따른 찬반 양론의 原因을 규명하였다.

그 結果 수산업 참여에 대한 태도에 찬성한 비율(64.8%)이 반대한 비율(35.2%) 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산업 참여에 찬성한 태도를 가진 어민들에게 그 찬성의 理由를 알아 본 결과 共通的인 內容으로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가 全體 찬성자의 약 72.6%로 나타났다으며, 이에 반하여 수산업 참여에 반대한 意見을 提示한 사람들에게 그 反對한 理由를 알아 본 결과 공통적인 의견이 「과중한 노동력과 수산업 발전의 불투명성」에 全體 反對者의 53.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두 意見에 대한 內容을 고려한다면 水産業의 「發展可能性」이 「불투명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앞으로 水産業의 發展을 現代化된 機械 설비를 갖춘다면 水産業의 發展이 가져올 國益은 大端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觀

産業化 社會에서 大部分의 農漁村 젊은 층이 農業이나 水産業 등 過重한 肉體的 노동력이 要求되는 一次産業을 외면하고 근로조건에 비해 收益性이 높은 三次産業이나 서비스업을 選好하며 何都難村하는 傾向이 날로 增加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農漁村 所得은 날로 減少一路에 치닫고 있다.

事實 이러한 추세가 단순히 勞動條件의 不利함에 그 原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水産業 그 自體의 職業的 不利益이나 傳統的 通念으로서 水産業에 관한 職業的 認識不足(職業的 귀 忱 思想)에 귀인된 것인지를 確實히 규명하여 이에 대한 代案을 수립하려는데 主案點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水産業 그 自體의 職業的 價値를 漁村住民들이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수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이를 「性別」 「年齡別」 「學歷別」 「經歷別」 「地域別」로 區分하여 알아 보았다.

첫째,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觀을 「性別」로 알아 본 結果는 <표 16>과 같다.

<표 16> 性別 수산업의 가치 인식

구분 성별	매우 좋은 직업	좋은 직업	보통	별로 좋은 직업 아님	매우 좋은 직업 아님	계
남	7.4	34.0	38.8	17.5	2.3	1,801
여	2.4	38.6	36.1	19.3	3.6	83
%	7.2	34.2	38.7	17.6	2.3	1,884

$$X^2=4.11 \quad df=4 \quad P>.5$$

<표 16>에 따르면 男女 총 應答者 1884명 중 水産業의 職業的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反應이 19.9%로(가치 중립 38.7%는 제외) 나타났다. 이러한 反應에 의하면 水産業을 긍정적으로 評價하고 있는 漁民들이 否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男女別로 살펴 볼 때 肯定的인 評價에서 「男子=41.4%, 女子=41.0%」, 否定的인 評價에서 「男子=19.8%, 女子=22.9%」로 큰 差異는 없었다. 結果的으로 男女 특히 水産業을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에서 나타난 否定的인 反應을 한 388명에 대하여 그 理由를 要因別로 알아 본 結果는 <표 17>과 같다.

<표 17> 수산업이 좋은 직업이 아닌 이유

구분 성별	수익성이 적어서	해난사고의 위험	과중한 노동력	사회적 천시성	기술 낙후	출세 장애	계
남	15.4	12.2	22.7	32.2	7.3	10.3	370
여	22.2	22.2	16.7	22.2	5.6	11.1	18
%	15.7	12.6	22.4	31.7	7.2	10.3	388

$X^2=2.78$ $df=5$ $P>.5$

<표 17>에 따르면 수산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應答한 총 388명 중 「社會的 천시 사상 때문=31.7%, 과중한 노동력 때문=12.6%」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結果에 의하면 水産業을 否定的인 次元에서 認識하고 있는 漁民들은 그 原因을 주로 水産業의 職業的 천시 사상과 과중한 노동력에 主要 理由를 두고 있음이 밝혀 졌다.

위와 같은 內容을 綜合해 볼 때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를 肯定的으로 受容하고 있는 漁民이 否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는 漁民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水産業이 漁民들에게 좋은 職業으로 受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小數 漁民들이 水産業을 否定的인 視角에서 評價되고 있는 「천시 사상」과 「과중한 노동력」등에 대하여는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에 부응할 수 있는 多角的인 弘報活動과 機械化 시설의 現代化가 時急히 해결될 수 있는 方案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둘째,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觀을 年齡別로 알아 본 結果는 <표 18>과 같다.

<표 18> 연령별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 판단

구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
매우 좋은 직업이다		10.2	2.9	4.3	4.2	3.5	0	7.2
좋은 직업이다		38.7	29.6	29.1	27.8	31.4	50.0	34.1
보 통		36.3	42.2	42.1	41.2	38.4	25.0	38.8
별 좋은 직업 아님		12.9	23.8	21.7	23.1	24.4	25.0	17.7
매우 좋은 직업 아님		1.9	1.5	2.8	3.7	2.3	0	2.3
계		978	206	392	216	86	8	1,886

$X^2=75.0$ $df=20$ $P<.001$

<표 18>에 따르면 총 應答者 1886명 중 수산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肯定的인 反應을 한 비율은 41.3%(가치중립 제외) 수산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否定的인 反應을 한 비율은 20.0%로 나타나 수산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肯定的인 反應이 否定的인 反應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산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反應한 연령별 비율 순위를 볼 때 60세 이상이 50.0%, 19세 이하가 48.9%, 50대가 34.9%, 30대가 33.4%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를 綜合해서 해석해 볼 때 漁村住民들의 생각하는 水産業이란 매우 매우 좋은 職業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年齡에 關係없이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를 肯定的으로 受容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다음은 「水産業이 좋은 職業이 아니라고」 否定的인 反應을 한 20.0%의 應答者에 限하여 그 理由를 알아 본 結果 <표 19>와 같다.

<표 19> 연령별 수산업의 부정적인 반응 이유

구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
수익성이 적어서		11.3	17.3	18.6	18.3	17.9	50.0	16.0
해난사고의 위험		22.0	7.7	5.9	10.0	3.6	0	12.4
과중한 노동력		24.1	21.2	19.6	21.7	28.6	25.0	22.5
사회적 천시성		29.8	34.6	32.4	33.3	32.1	0	31.5
기술 낙후		4.3	5.8	8.8	11.7	10.7	0	7.2
출세 장애		8.5	13.5	14.7	5.0	7.1	25.0	10.3
계		141	52	102	60	28	4	389

$$X^2=35.8 \quad df=25 \quad P<.05$$

<표 19>에 의하면 「수산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反應한 총 應答者 389명 중 「수산업의 사회적 천시 사상」 때문이라는 이유가 3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과중한 노동력」 때문이 22.5%, 「수익성이 적어서」가 16.0% 등의 순위를 나타냈다.

이러한 反應의 結果를 연령별로 살펴 볼 때, 연령에 관계 없이 共通的으로 가장 높은 反應율은 「사회적 천시 사상」으로 나타났다. 단 60세 이상은 사례수가 적어서 대표성이 약하므로 제외하였다. 「과중한 노동력」 때문이라는 이유에 있어서는 「연령」이 많은 사람 일수록 약간 높게 반응하였다.

이상의 內容을 全體的으로 수산업을 否定的인 視角에서 評價하는 漁民들에게는 水産業 自體가 社會的으로 천대 받는 직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육체적 노동력을 必要로 하는 産業을 기피하는 태도를 받아드려 진다고 하겠다.

세째,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觀을 學歷別로 알아 본 結果는 <표 20>과 같다.

<표 20>에 의하면 총 應答자 1,874명 중 수산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평가한 反應율은 41.5%,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反應율은 20.5%로 나타났다. 가치 중립적인 평가 38.6%를 제외하면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평가는 매우 肯定的이 있다.

이러한 事實을 學歷別로 살펴 볼 때 「국졸」(30.0%)과 「중졸」(21.0%)은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를 否定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재」(48.5%), 「고졸」(32.8%), 「대졸」(41.5%)은

〈표 20〉 학력별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 판단

구분	학력별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재	고 졸	대졸(이상)	%
매우 좋은 직업		0	0	5.0	9.9	5.4	3.8	7.2
좋은 직업		50.0	24.3	14.0	38.6	27.4	35.7	34.3
보 통		0	45.7	50.0	36.4	40.1	39.3	38.6
별 좋은 직업 아님		50.0	25.7	29.0	13.1	24.0	19.4	17.6
매우 좋은 직업 아님		0	4.3	2.0	2.1	3.2	1.8	2.3
계		2	70	100	993	317	392	1,874

$X^2=87.58$ $df=20$ $P<.001$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에 들어났다.

위의 내용을 結合적으로 解釋에 볼 때, 學歷이 낮을수록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反應, 學歷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다음은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反應者에 限하여 그 理由를 알아 본 結果는 〈표 21〉과 같다.

〈표 21〉 학력별 수산업이 좋은 직업이 아닌 이유

구분	학력별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재	고 졸	대졸(이상)	%
수익성이 적어서		0	8.0	20.0	13.6	25.8	10.8	16.1
해난사고의 위험		0	0	5.0	21.1	9.0	9.6	12.7
과중한 노동력		50.0	32.0	15.0	23.8	20.2	24.1	22.8
사회적 천시성		50.0	28.0	40.0	28.6	28.1	38.6	31.9
기술 낙후		0	4.0	12.5	4.1	9.0	4.8	6.2
출세 장애		0	28.0	7.5	8.8	7.9	12.0	10.4
계		2	25	40	147	89	83	386

$X^2=44.67$ $df=25$ $P<.001$

〈표 21〉에 의하면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총 反應의 386명 중 31.9%는 「수산업의 사회적 천시 사상」 때문이라고 그 理由를 밝히고 있으며, 22.8%는 「과중한 노동력」 때문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력별로 살펴 볼 때 「사회적 천시사상」의 反應에 있어서 「중졸자」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로 「대졸」이 38.6%였으며, 그 밖의 모든 學歷集團은 비슷한 反應을 보였다.

「과중한 노동력」이 重要的 理由로 反應한 集團은 「국졸자」가 32.0%로 가장 높은 反應을 하였으며, 「중졸자」와 「고졸자」는 「수익성이 적어서」가 높게 나타났다.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理由로서 사회적 천시 사상과 과중한 육체적 노동력의 문제는 학력집단 별로 크게 일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극히 소수의 어민들에게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내째,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를 經歷別로 알아 본 結果는 〈표 22〉와 같다.

〈표 22〉 경력별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 판단

구분	경력별	5년 이하	6~15	16~25	26~35	36년 이상	%
매우 좋은 직업		4.8	3.7	4.8	4.3	10.0	7.3
좋은 직업		25.2	26.6	37.6	28.2	37.9	34.0
보통		42.4	49.5	37.9	37.2	36.8	38.7
별로 좋은 직업 아님		24.8	18.3	17.8	26.1	13.3	17.7
매우 좋은 직업 아님		2.7	1.8	1.9	4.3	2.0	2.3
계		330	109	314	188	933	1,874

$$X^2=72.4 \quad df=16 \quad P<.001$$

〈표 22〉에 의하면 경력별 총 反應者 1,874명 중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反應者는 41.3%, 그와 反面에 낮게 평가한 反應者는 20.0%였다. 價値 평가를 肯定적으로 反應한 비율이 否定的으로 反應한 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事實을 감안할 때 漁村地域 住民들의 水産業의 職業과 價値를 높게 평가한 있음이 들어났다.

다음은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를 낮게 평가하는 反應者에 限하여 그 理由를 알아 본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경력별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 판단

구분	경력별	5년 이하	6~15	16~25	26~35	36년 이상	%
수익성이 적어서		16.0	9.1	11.5	30.5	12.2	15.8
해난사고의 위험		3.8	13.6	9.8	8.5	21.6	12.4
과중한 노동력		19.8	31.8	23.0	18.6	24.5	22.5
사회적 천시성		34.0	31.8	41.0	27.1	28.8	32.0
기술 낙후		10.4	4.5	8.2	10.2	3.6	7.2
출세 장애		16.0	9.1	6.6	5.1	9.4	10.1
계		106	22	61	59	139	387

$$X^2=42.8 \quad df=20 \quad P<.001$$

〈표 23〉에 의하면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를 낮게 평가한 총 反應者 387명 중 그 理由를 「社會的 천시 사상」 때문으로 反應한 비율이 3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과중한 노동력」 때문이 22.5%, 「수익성이 적어서」가 15.8% 등의 순위로 들어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경력별로 그 反應을 살펴 볼 때 「사회적 천시사상」의 理由에서는 16~25년 사이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중한 노동력」의 理由에서는 6~15년 사이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기할 事實은 26~35년 사이의 集團은 「수익성이 적어서」가 30.5%로 가장 높게 그 理由를 밝혔다.

이상의 結果를 綜合적으로 해석해 볼 때 水産業의 직업적 귀천 사상을 불식 시킬 수 있는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중한 노동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계화 시설, 및 水産業의 收益性을 높일 수 있는 方法등이 이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重要한 課題라고 보겠다.

다섯째,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 판단을 지역별로 살펴 볼 때 〈표 24〉와 같이 나타났다.

〈표 24〉 지역별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 판단

구분	지역별	인천	포항	남해	거제	주문진	완도	진도	제주	대천	울릉도	기타	%
매우 좋은 직업		4.5	5.1	6.6	11.1	5.8	10.1	3.1	7.8	9.9	9	14.9	7.2
좋은 직업		28.6	36.4	49.3	35.9	34.1	32.4	36.9	32.8	37.2	17.4	30.5	34.0
보통		46.7	42.9	33.6	45.3	33.6	31.8	39.4	39.1	39.8	37.4	37.0	38.7
별 좋은 직업 아님		17.1	15.2	9.2	6.0	25.2	24.6	16.2	18.2	12.0	34.8	15.6	17.7
매우 좋은 직업 아님		3.0	5	1.3	1.7	1.3	1.1	4.4	2.1	1.0	9.6	1.9	2.3
계		199	198	152	117	226	179	160	192	191	115	154	1,883

$X^2=95.4$ $df=50$ $P<.001$

〈표 24〉에 의하면 수산업의 職業的 價値, 판단에 대한 총 反應者 1,883명 중 수산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41.2%, 수산업의 職業的 價値를 낮게 평가한 비율은 20.0%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에 따르면(中立的 價値判斷은 除外) 수산업의 職業的 價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否定的인 평가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역별로 살펴 볼 때 수산업의 職業的 價値를 가장 높게 평가한 지역은 남해 지역으로 55.9%, 다음은 거제 47.0%, 대천 47.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가장 낮게 평가한 지역은 울릉도 지역이므로 44.4%의 반응율을 나타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수산업의 職業的 價値 평가는 地域마다 약간의 差異가 있었다. 그 理由는 아마도 地域的 特性 때문에 오는 原因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수산업의 職業的 價値 평가를 낮게한 地域에 限해서 그 理由를 알아 본 結果는 〈표 25〉와 같다.

〈표 25〉 지역별 수산업의 직업적 가치평가를 낮게한 理由

구분	지역별	인천	포항	남해	거제	주문진	완도	진도	제주	대천	울릉도	기타	%
수익성이 적어서		12.8	13.3	10.0	11.1	33.3	20.8	24.4	2.6	4.0	9.8	10.7	15.9
해난사고의 위험		10.3	33.3	10.0	11.1	11.7	6.3	4.9	23.1	8.0	9.8	14.3	12.6
과중한 노동력		23.1	26.7	30.0	22.2	21.7	33.3	22.0	25.6	28.0	3.9	21.4	22.6
사회적 천시성		28.2	16.7	30.0	55.6	20.0	31.3	22.0	35.9	32.0	54.9	39.3	31.8
기술 낙후		5.1	0	20.0	0	5.0	4.2	14.6	5.1	12.0	5.9	7.1	6.9
출세 장애		20.5	10.0	0	0	8.3	4.2	12.2	7.7	16.0	15.7	7.1	10.3
계		39	30	20	9	60	48	41	39	25	51	28	390

$X^2=95.4$ $df=50$ $P<.001$

〈표 25〉에 의하면 수산업의 職業的 價値를 낮게 평가한 총 反應者 390명 중 그 理由를 「사

회적 천시사상」에 反應한 비율이 31.8%, 다음은 「과중한 노동력」에 둔 비율로 22.6%, 「수익성이 적어서」가 15.9% 등의 순위로 들어났다.

이러한 理由에 대한 지역별 反應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 볼 때 「사회적 천시사상」에 있어서는 거제지역으로 55.9%, 「과중한 노동력」에 있어서는 완도지역으로 33.3%, 「수익성이 적어서」는 주문진 지역으로 33.3%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內容을 綜合적으로 解釋해 볼 때 지역에 따라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를 다르게 평가한 理由는 그 地域의 社會的 전통이나 혹은 條件에 따라 水産業의 價値는 다르게 判斷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要約 및 結論

以上の 結果를 要約해서 結論을 整理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本 研究에서 얻고자한 內容은 첫째, 漁村에 居住하는 住民들의 水産業 및 漁業 分野에 대한 選好態도와 참여의식을 규명하는 것과, 둘째 漁業이나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評價를 알아 보려는데 있었다.

이와같은 두 內容을 규명하기 위한 具體的인 要因으로 ① 性別 ② 年齡別 ③ 學歷別 ④ 經歷別 ⑤ 地域別로 하고, 各 要因別에 따른 贊反 反應비율과 또, 贊反者에 따른 각각의 理由를 규명하였다.

本 調査에 참여한 漁村住民은 男子 1784명, 女子 79명으로 構成되었으며, 構成員의 形態는 漁業關聯 公職者, 學生, 教師, 漁民 및 漁村住民으로 하였다.

이들의 反應結果에 대한 첫째 內容으로 漁村에 居住하는 住民들의 水産業 및 漁業 分野에 대한 選好도와 참여의식의 要因別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水産業에 대한 참여의식은 대단히 높았다. 총 응답자의 64.8%가 水産業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였으며 35.2%는 반대하였다.

이들 찬성자 64.8%는 그 찬성이유를 水産業의 未來發展可能性에 두고 있었으며, 반대자의 반대 이유는 주로 “과중한 노동력”과 “發展可能性의 불투명성”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反應에서 특기할 것은 찬성자의 비율이 절대다수이며 반대자는 불과 35.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찬성자의 연령별, 경력별에 따른 反應內容은 연령이 높고 경력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찬성율이 높았으며, 그와 反對로 반대자는 저 연령층과 학력이나 경력이 낮은 사람이 많았다.

단 수산업을 천시하고 있기 때문에 漁業이나 水産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위 직업적 천시사상은 매우 낮은 비율로 反應하였다.

둘째, 水産業에 대한 職業的 價値觀을 알아 본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水産業을 좋은 職業이라고 反應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41.4%, 좋은 職業이 아니라고 反應

한 應答者는 불과 19.9%였다. 그리고 水産業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치 중립적인 態度 反應은 除外하였다.

이러한 結果에 의하면 水産業의 職業的 價値도 매우 좋게 評價되고 있음이 들어났다.

水産業을 좋은 職業이 아니라고 應答한 사람에 한하여 各 要因別 分析 結果, 주로 “과중한 노동력”과 “사회적 천시사상”때문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水産業을 否定的으로 보는 應答者중 연령별, 학력별 및 경력별로 分離해서 그 理由를 알아본 결과, 연령이나 학력 및 경력이 낮은 층이 높은 층 보다 더 否定的인 評價를 하였다.

이와 같은 結果를 整理해 보면, 漁村地域 住民들이 漁業이나 水産業에 종사하는 것을 選好하고 있으며, 참여의식도 매우 높은 것으로 評價되었다. 漁業의 職業觀에 있어서도 過去처럼 職業的 귀천사상이 漁業이나 水産業 참여태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다만 一部 小數 층만이 漁業이나 水産業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었다.

앞으로 漁村住民의 水産業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方法으로는 現代化 시설과 장비를 具備하게 되면 많은 젊은 층을 漁村地域에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며, 漁村의 婦女化와 老齡化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고려 된다.

특히 漁業이나 水産業 發展을 밝게 보는 理由는 未來發展과 漁村地域 發展에 크게 關心을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참 고 문 헌

- 1) 고관서, 어민후계자 육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 세미나 보고서, 한국농업교육학회, 1981.
- 2) 공용식, 영어 후계 육성 총론, 한국수산경영학회지, 15.1, 1984.
- 3) 이강우, 우리나라 어촌의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논집, 16.2, 1985.
- 4) 이현우, 이경준, 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어촌지역 중등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방안, 한국수산경영학회지, 수산경영논집, 14.2, 1988.
- 5) 전국 수산고등학교 교육계획서, 1988.
- 6) 전국 수산관련 업무보고서, 1981~'88.